전주기상지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9. 2.(수) 12:00 배포 2026. 9. 2.(수) 12:00

지난 100년의 기상관측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잇다

- 전주기상지청,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인증 기념 현판식 개최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9월 2일(수) 오전 11시 전주기상지청에서 **'세계기상기구(WMO) 100년 관측소'**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주기상지청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해 온 기상관측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기상관측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 제막에는 과거 전주기상지청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기상인과 현재 전주기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장 젊은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100년간 기상관측의 현장을 지켜온 선배 세대와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갈 미래 세대가 함께 현판을 제막함으로써, **'과거 100년의 기록을 미래 100년으로 잇는다'** 는 의미를 담았다.

전주의 근대 기상관측은 1919년 시작되어 10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관측자료는 전북지역의 기후변화 분석과 위험기상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관측환경과 관측자료의 품질 등을 갖춘 관측소를 '100년 관측소'로 인정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의 이번 인증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상관측을 이어온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기상인들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오늘 우리가 활용하는 기상관측자료 한 줄 한 줄에는 지난 100년 동안 관측 현장을 지켜온 선배 기상인들의 노력과 책임이 담겨 있다.” 라며, “이번 현판식은 단순히 지난 10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배 기상인으로부터 이어받은 관측의 가치와 책임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자리”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도 흔들림 없이 관측을 이어가 국민의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기상기후자료를 생산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현판식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63-249-3202)
		담당자	사무관	김소형 (063-249-32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현판식 행사 사진**

전주기상지청 WMO 100년 관측소 현판식
2026. 09. 02.(수) | 전주기상지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JEONJU
RECOGNIZED AS A LONG-TERM OBSERVING STATION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N JUNE 2026 FOR MORE THAN 100 YEARS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S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